

주요 내용

1.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 결과]
개신교인, '현재 영적 갈급함 느끼고 있다' 64%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2021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 2)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
3. [넘버즈 칼럼] 기후위기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개신교인, ‘현재 영적 갈급함 느끼고 있다’ 64%!

지난 주에 이어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4차 조사’ 개신교인 대상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의 30% 정도는 ‘영적 갈급함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은 3명 중 2명꼴(64%)에 달한다. 교회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또, 한국교회를 향한 청년들의 요구가 눈에 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변해야 하는 문화’로 ‘과도한 헌신 요구’와 ‘권위주의적 위계질서’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 한국교회의 바통을 이어갈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체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도 주목할 만한데, ‘평신도 리더(장로 등)의 연령을 낮추고’, ‘의사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 동의율이 작년보다 높아지는 등 한국교회가 시대 흐름에 맞게 인식을 넓혀야 한다는 교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교회의 문화적,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개편 등 총체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와 맞닥뜨리고 있다.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이번 보고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4차) 결과2 (개신교인)

우리 연구소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 추적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4차 조사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 조사한 것으로 한국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개신교인의 코로나 이후 영적 체험 경험, 영적 갈급함 정도를 파악하고 출석교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 한국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다음세대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조사 개요

구분	내용
•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 표본 규모	총 1,500명 (유효 표본)
•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추출법 (고령화 가중치 적용*)
•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2.5\%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조사 기간	2022년 4월 15일 ~ 4월 25일 (11일간)
• 조사 주관	예장통합총회 / 기아대책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가중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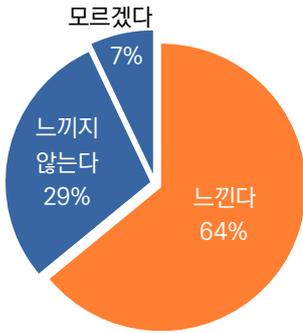
- 1) 2015 인구센서스 기준 개신교인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 2) 조사 완료 후 2021년 기준 여론조사 결과(한국갤럽)를 토대로 한 종교분포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가중치 부여 (2021년 3~11월 전국 일대일 개별면접조사 실시 결과를 취합한 자료이며, 총 6003 표본의 응답 결과임)

01

개신교인, '현재 영적 갈급함 느끼고 있다' 64%

-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의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적 욕구는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개신교인의 3명 중 2명 꼴(64%)로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상당수의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을 내면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현재 영적인 갈급함 느끼는 정도 (개신교인 전체)



◎ 영적 갈급함 욕구 → 대형교회, 종직자, 현장 예배자일수록 높아

- ▶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고, 현장 예배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교회 규모별로는 코로나 이후 상대적으로 교회 활동이 저조한 대형교회 교인들에게서 높았다.
- ▶ 코로나 이후 신앙 약화가 두드러진 온라인 예배자의 경우도 무려 67%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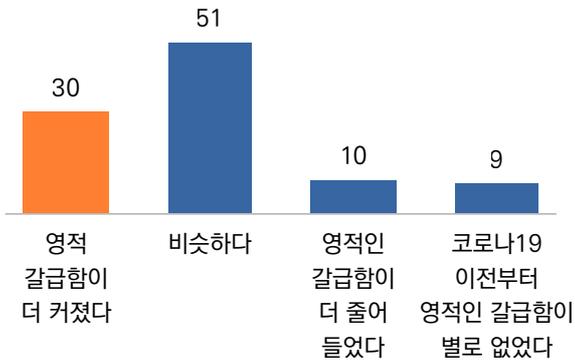
[표] 영적 갈급함 '현재 느낀다'(매우+약간) 비율 (계층별)

연령		주일예배 유형		직분		교회 규모(장년)	
20대	50%	현장 예배자	76%	종직자	79%	99명 이하	70%
30대	61%	온라인 예배자	67%	서리집사	73%	100~999명	66%
40대	63%	드리지 않음	48%	일반성도	62%	1000명 이상	74%
50대	67%						
60대 이상	70%						

◎ 코로나19 이후 영적 갈급함 ‘더 커졌다’ 30% > ‘더 줄어들었다’ 10%!

- ▶ 또, 코로나19 전후의 영적 갈급함 변화에 대해 묻은 결과, 코로나 이전보다 영적 갈급함이 ‘더 커졌다’는 답변은 10명 중 3명꼴(30%)로 나타났다. 반면, ‘영적인 갈급함이 더 줄어들었다’는 비율은 10%에 그쳤다.
- ▶ 영적 갈급함이 더 커졌다는 응답은 현장예배자와 중직자 중에서 높았으며, 교회규모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코로나 전후 영적인 갈급함 변화 (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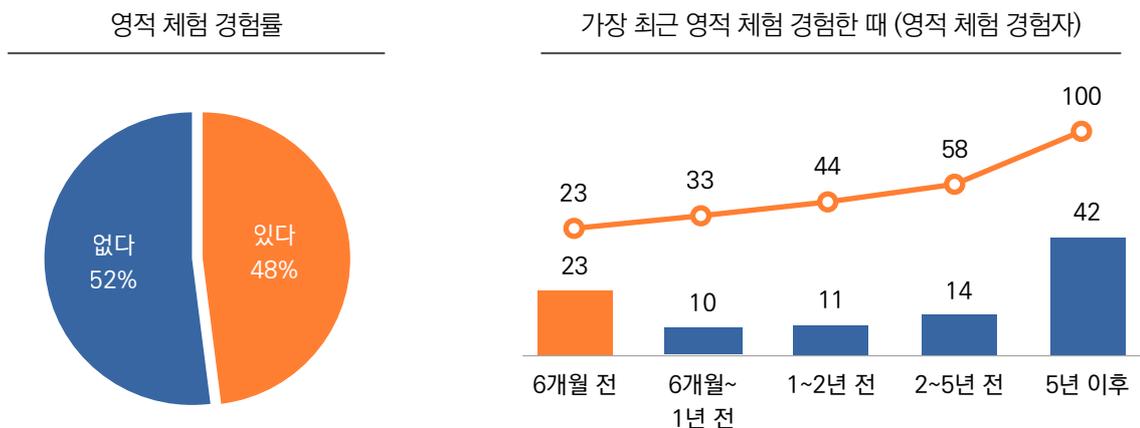
[표] 코로나 전후 영적 갈급함이 더 커졌다 (예배유형별, 직분별, %)

주일예배 유형별		직분별	
현장 예배자	38%	중직자	39%
온라인 예배자	27%	서리집사	34%
드리지 않음	20%	일반성도	28%

◎ 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이(48%) 영적 체험 경험 있어! 그러나, ‘영적 체험 경험한 지 1년 넘었다’ 67%!

- ▶ 앞서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개신교인’이 3명 중 2명(64%)이었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경험한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되며, 언제 영적 체험을 경험했을까?
- ▶ 개신교인의 절반 가까이(48%)는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장 최근 영적 체험을 경험한 시기’를 묻은 결과, ‘6개월 전’ 23%, ‘6개월~1년 전’ 10%로 영적 체험한지 1년 이내가 33%였고 나머지 67%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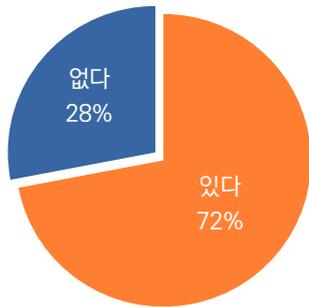
[그림] 개신교인의 영적 체험 경험 (%)



◎ 개신교인, '영적 체험 경험하고 싶다' 72%!

- ▶ 앞으로 특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의향을 묻은 결과, '있다'는 응답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 ▶ 영적 체험 경험자의 경우 88%로 영적 체험 비경험자(57%)에 비해 '경험하고 싶은 마음'(매우+약간)이 매우 높았고, 예배 유형별로는 '현장 예배자(83%)'가 온라인 예배자(72%)보다 영적 체험 욕구가 높았다. 또, 교회 직분별로는 '중직자(8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리집사(82%)' '일반성도(69%)' 순으로 나타났다.
- ▶ 높은 '영적 갈급함'과 '영적 체험 의향률'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 차원에서 전교인 여름 수양회, 특별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겠다.

[그림] 영적 체험 경험하고 싶은 마음 (개신교인 전체)



[표] 영적 체험 경험하고 싶은 마음 '있다' (계종별, 매우+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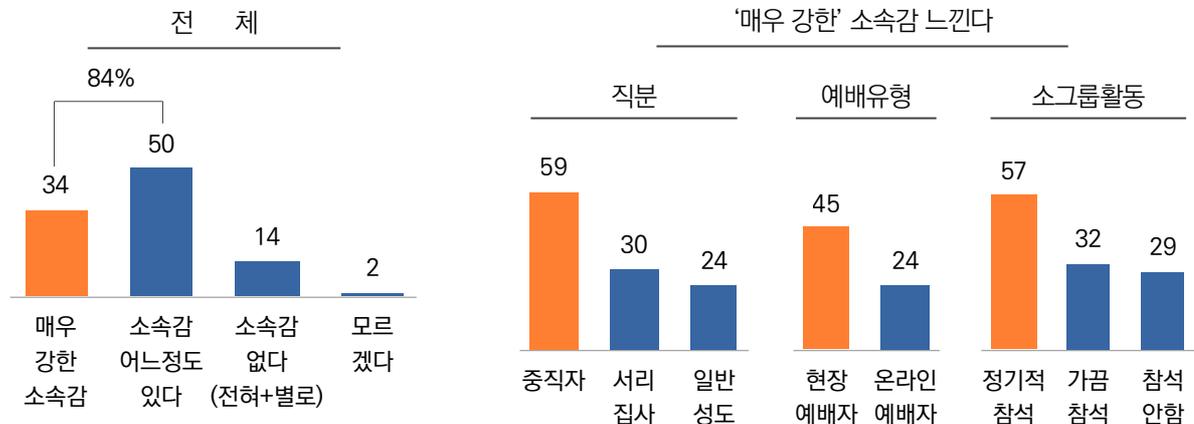
영적 체험 유무별		예배 유형별		교회 직분별	
경험자	88%	현장 예배자	83%	중직자	85%
비경험자	57%	온라인 예배자	72%	서리집사	82%
				일반성도	69%

02

출석교회에 대한 소속감, 중직자,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현장예배자 일수록 강해!

- ▶ '현재 출석교회에 소속감을 느낀다(매우+어느정도)'는 비율은 84%로, 교회 출석자의 대부분이 출석교회에 소속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매우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는데, 중직자 그룹과 현장예배자 그리고 소그룹 정기적 활동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을 교회의 중추적인 핵심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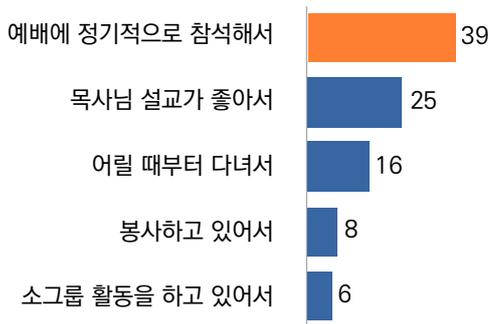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출석자, %)



◎ 소속감 느끼는 이유 : 정기적인 예배 참석 소속감 못느끼는 이유 : 소속된 모임 없어서

- ▶ 그렇다면 '출석교회에 소속감을 느끼는(매우+어느정도)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39%)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가 25%로 응답됐다. '정기적인 예배 참석'이 출석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 반면, '출석교회에 소속감을 못느끼는 이유'를 묻은 결과,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아서/소속된 모임이 없어서'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 같은 응답은 대형교회 교인일수록 높은 특성을 보였다.
- ▶ 따라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배 참여 유도'와 '소그룹 모임 참여 권유' 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출석교회에 소속감 느끼는 이유
(출석교회 소속감 있는 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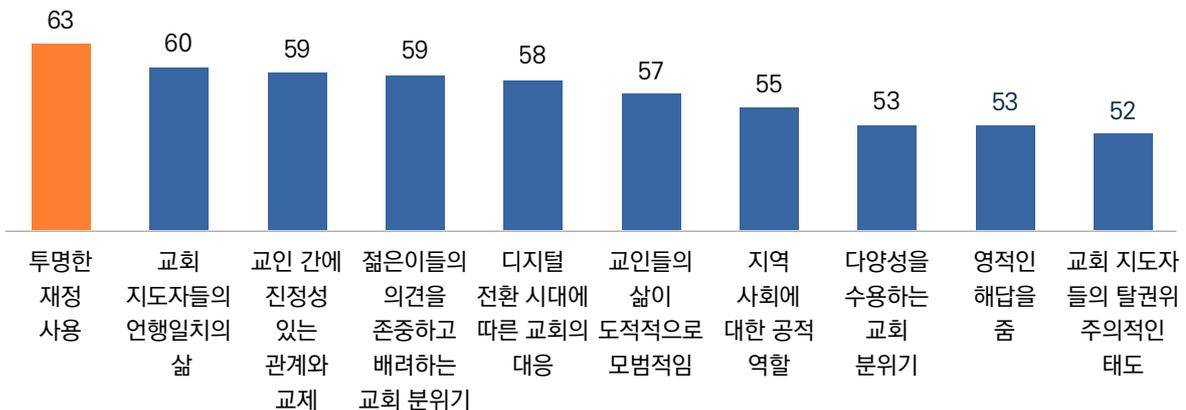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에 소속감 못느끼는 이유
(출석교회 소속감 없는 자, 상위 5위, %)



◎ 출석교회 평가 → 영적해답 제공, 다양성 수용, 리더십의 탈권위주의적인 태도 측면에서 평가점수 상대적으로 낮아

- ▶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10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만족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투명한 재정사용이 63%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른 항목들은 50%대의 중간적인 평가를 받았다.
- ▶ 특히 다양성 수용문화, 영적 해답 제공, 지도자들의 탈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50%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 교회에 대한 항목별 평가에서 중직자, 현장예배자 그리고 소그룹 활동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그림] 출석교회 만족도-항목별 (5점 척도, 매우+약간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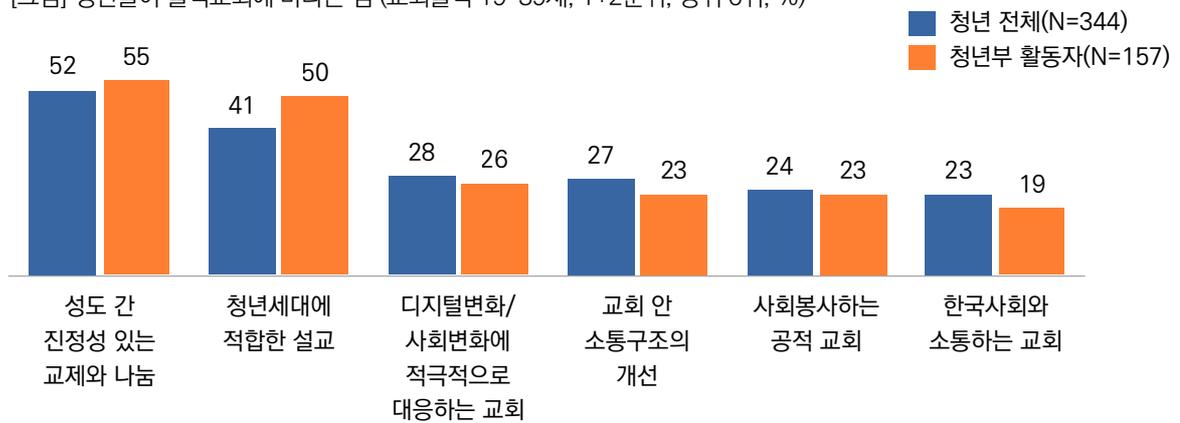


03

청년이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 말씀보다는 진정성 있는 관계와 나눔을 더 원해!

- ▶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음세대 관심도가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2030세대들(344명)을 대상으로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성도 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52%)을 가장 많이 꼽아, '진정성 있는 소통'에 대한 청년세대의 욕구 및 갈급함을 나타냈다.
- ▶ 청년부 활동자의 경우 '성도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 '청년세대에 적합한 설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 종합해보면 청년들은 교회 내적으로 진정성있는 성도 간 나눔을 통해 소통하고, 교회 외적으로는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한국사회와 소통하는 개교회가 되길 바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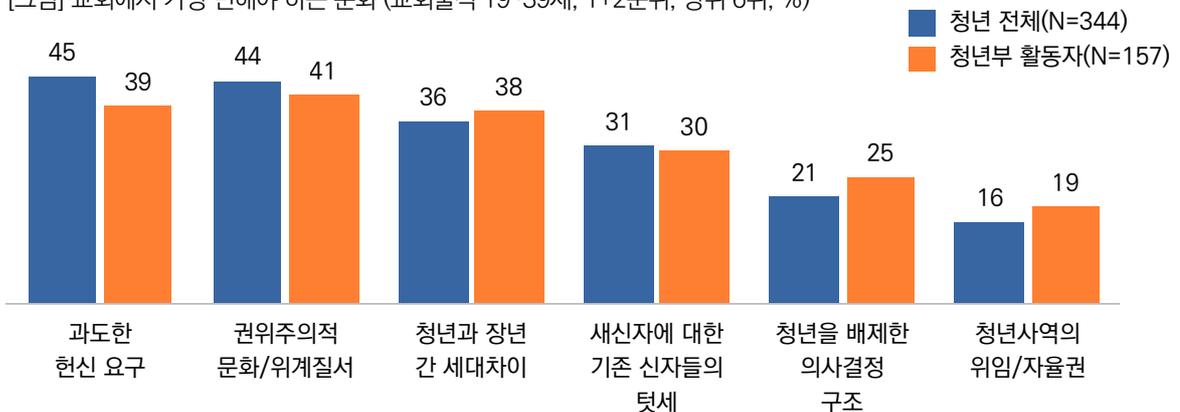
[그림] 청년들이 출석교회에 바라는 점 (교회출석 19~39세, 1+2순위, 상위 6위, %)



◎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해야 할 교회 문화, “과도한 헌신 요구와 권위주의적 문화”!

- ▶ 청년들이 요구하는 교회에서 변해야 하는 문화로는 '과도한 헌신 요구'(45%)와 '권위주의적 문화/위계질서'(44%)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이는 과거 기성세대의 청년 때와 다르게 요즘의 청년들은 아무리 선한 목적의 교회 봉사라 하더라도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과도한 열정페이*(헌신)를 요구받는 것에 대해 저항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청년부 활동자의 경우 '청년을 배제한 의사 결정구조', '청년사역의 위임/자율권'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교회에서 가장 변해야 하는 문화 (교회출석 19~39세, 1+2순위,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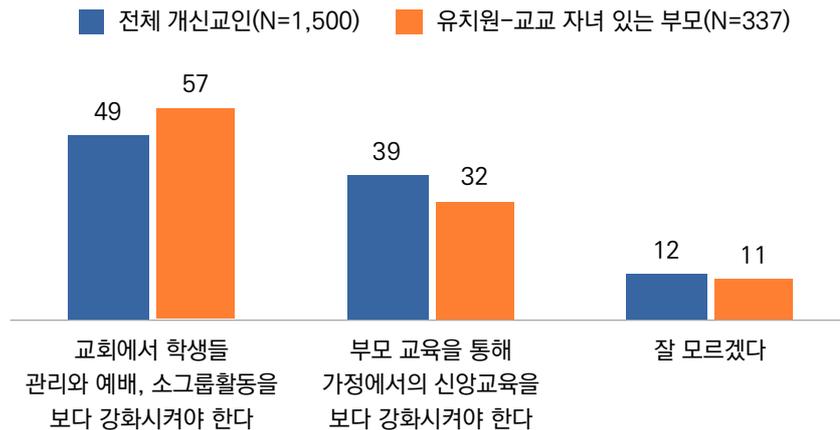
*'열정페이'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한다'는 뜻의 신조어임.

04

교회학교 학부모, 가정 신앙교육보다는 교회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높아!

- 개신교인들에게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의 신앙교육 방향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학생 관리와 예배, 소그룹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49%,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 39%로 나타나, 가정 신앙교육보다는 교회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러한 인식은 학부모들의 경우 더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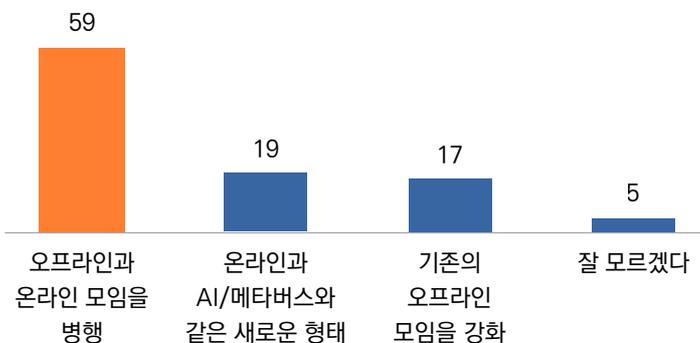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후 다음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의견 (%)



◎ 다음세대 교육 방식, 5명 중 1명은 '온라인과 AI/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야!

-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교육 방식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임 병행'(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존의 오프라인 모임 강화'와 '온라인과 AI/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형태'는 각각 17%, 19%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 '오프라인 모임 강화'뿐만 아니라 점차 다음 세대가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등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다음세대 교회교육 방향 (개신교인 전체, %)



05

개신교인이 꼽은 코로나19 종식 후 한국교회에 일어날 변화는? '온라인 활성화' 1위!

- ▶ 코로나19 종식 후 한국교회에 일어날 변화로 '온라인 예배/콘텐츠 활성화'(33%)와 '출석 교인 수 감소'(30%)가 가장 높게 응답됐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강화되면서, '온라인 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20%에 달했다. 반면, '현장예배가 강화될 것'이라는 응답(25%)도 다수 있었다.
- ▶ 이번 조사에서는 공동체성이 '강화될 것'과 '약화될 것'이라는 보기를 둘 다 제시했는데 그 결과, '강화될 것' 9%, '약화될 것' 17%로 나타나, 개신교인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 공동체성이 더 약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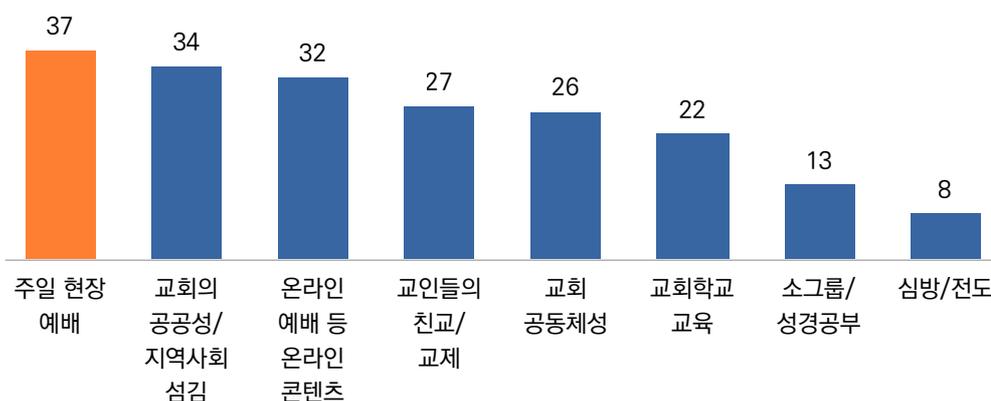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한국교회 변화 예상 (1+2순위, 개신교인 전체, 상위 10위, %)



◎ 개신교인이 꼽은 코로나19 이후 교회 중점 강화 사항, 1위 주일 현장예배, 2위 지역사회 섬김!

- ▶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주일 현장 예배'(37%)가 가장 많이 응답됐다. 다음으로 '교회의 공공성/지역사회 섬김'(34%), 온라인 예배 등 온라인 콘텐츠(32%) 순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들이 교회 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섬김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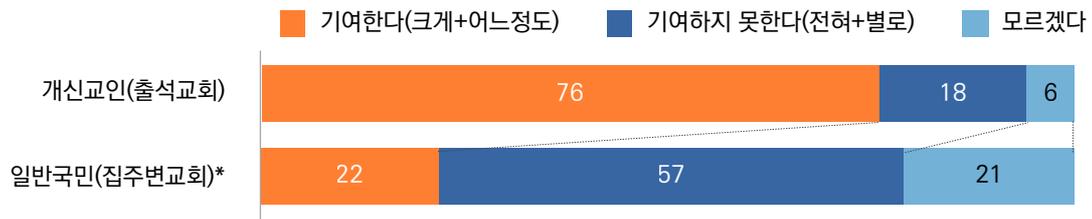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중점 강화 사항 (1+2순위, 개신교인 전체, 상위 8위, %)



◎ 교회의 지역사회 기여도, 교인과 지역주민 간 인식 차이 매우 커!

- ▶ 교회 출석자들에게 출석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기여한다'(크게+어느정도) 76%, '기여하지 못한다'(전혀+별로) 18%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 ▶ 반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집 주변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질문하였는데, '기여한다'(크게+어느정도) 22%, '기여하지 못한다'(전혀+별로) 57%로 부정평가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 ▶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교회 담을 사이에 두고 두 그룹 간에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보다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지점이다.

[그림] 교회의 지역사회 복지 및 발전 기여 정도 (출석 교회 vs 집주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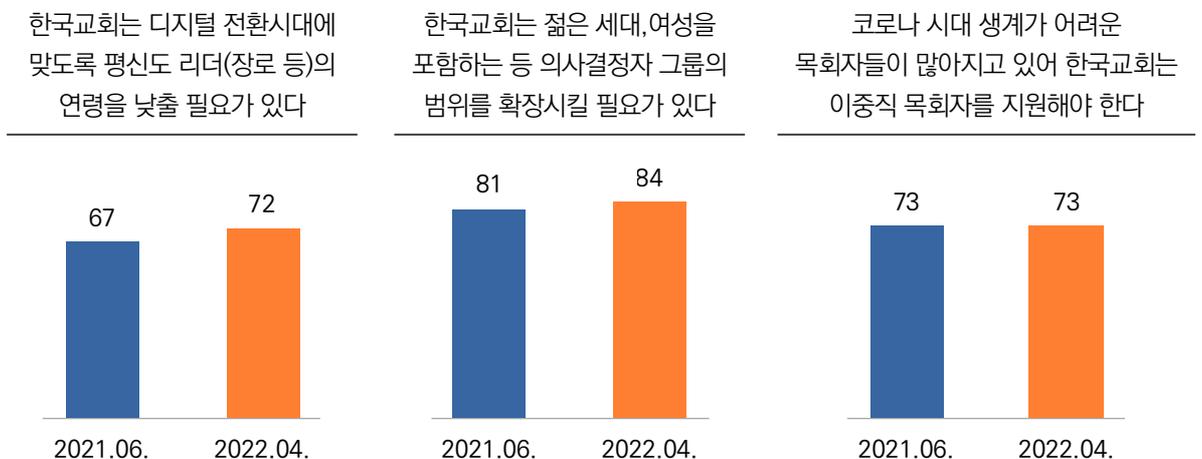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전국의 만 19~69세 일반국민, 2022.04.27~05.09.

06

개신교인, '평신도 리더 연령 확장 필요하다' 72%!

- ▶ 한국교회 관련 주요 몇 가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한국교회가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도록 평신도 리더(장로 등)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에 대해, 동의율은 72%로 작년보다 높아졌다.
- ▶ 다음으로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 여성을 포함하는 등 의사결정자 그룹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에 대한 동의율도 작년 대비(81%→84%) 상승했다.
- ▶ 리더십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교회 차원에서도 인식의 전환과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림] 한국교회 리더십에 대한 인식 ('동의한다' 비율, 개신교인 전체,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목회데이터연구소/(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보고서, 2021.07.20.(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8)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임.

07

개신교인,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교인 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은혜로운 설교가 있는 교회!’

- ▶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개신교인들에게 이에 대해 물은 결과,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와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위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바라는 점’ 1위로 응답된 ‘성도 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 2위인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둘 다 동일한 응답 순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 ▶ 젊은 층이든 그 외 다른 세대이든 ‘진정성 있는 교제’와 ‘설교’가 교회 생활 및 선택에 있어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그림]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개신교인 전체, 1+2순위, 상위 6위, %)



코로나19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약화시켰다.(넘버즈 146호 7쪽) 이는 성도들의 영성 약화로 이어져,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영적 갈급함이 더 커졌다는 응답이 30%나 되었다.(5쪽)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영성 약화의 첫 번째 원인은 주일예배와 집회/기도회가 제약을 받았다는 점이다. 성도들의 영성을 충족시켜줄 기회가 원천 봉쇄되므로 영적 힘을 얻을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둘째는 목회자의 돌봄이 줄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동안에 목회자들이 성도를 심방하고 상담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 우리나라 성도들의 영성 관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다 보니 영성이 약화되었다. 셋째는 공동체성의 약화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생기지만, 개신교 영성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고 키워진다. 코로나19 동안 성도들과의 만남과 공동체 활동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영성이 자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주일 현장예배'(37%)와 교인들의 친교 교제(27%/교회 공동체성(26%)을 응답했으며(10쪽),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에 대한 질문에서도 1, 2 순위가 각각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52%),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51%)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도 다니고 싶은 교회로 '성도간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52%)을 1위로,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41%)를 2위로 응답했다.(8쪽, 12쪽)

우리나라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설교이다. 평소 자기 주도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및 목회자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므로 설교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갈급한 심령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설교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은 현대인의 특성이 반영된 응답이다. 현대인들은 개인주의가 지나쳐 관계적 생활보다는 파편적 생활을 한다. 여기에 코로나19 동안의 비대면 접촉이 겹쳐서 사람들은 더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

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고립된 생활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넘버즈 14호에서는 이런 현대인의 특징을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2019. 9. 18)와 넘버즈 4호 '나 홀로 Life, 혼자여도 좋다'(2019. 7. 3)에서 다루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로 지으셔서, 인간이 아무리 '나 홀로' 생활을 즐긴다 하여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DNA가 우리 속에 있다.(현대 한국인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넘버즈 35호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지수 78점'을 참조)

코로나19가 끝나도 온라인예배의 편리성을 맛 본 성도들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전 출석 숫자를 기대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현장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가 주지 못하고 교회 현장에서만 줄 수 있는 매력, 혜택을 줘야 한다. 그 혜택이 위에서 본 것처럼 공동체와 영성이다. 성도들의 영성을 위한 집회, 모임, 프로그램 등이 전개되어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이 온라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 분위기를 느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 강화가 필요하다. 교회 전체적 집회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의 소그룹 공동체가 활발하게 가동하도록 하여 그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기뻐하도록 하여 공동체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면 온라인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들을 충족받을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회복은 얼마나 동원 체제를 잘 갖추고 동원 노력을 하느냐가 아니라 영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얼마나 움직이게 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 팬데믹 시기에 첫 여름이 다가온다. 2022년 여름을 어떤 전략으로 보내는가가 올 하반기와 내년도 한국교회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6)

1.[2021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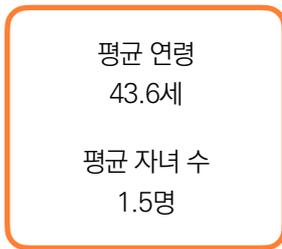
2.[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



한부모 가족 현황, 대부분 이혼자(82%)이며, 평균 1.5명 자녀 양육!

- ▶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고, 40대가 61%로 가장 많았다.
- ▶ 혼인 상태별로는 대부분이 이혼 한부모(82%)였고,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으며, 가구 구성을 보면, 모자중심 가구가 부자중심 가구보다 2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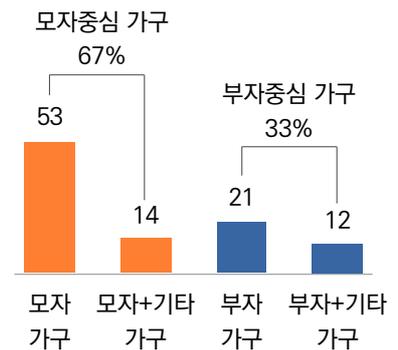
[그림] 한부모 가족 일반 사항



[그림] 혼인 상태



[그림] 가구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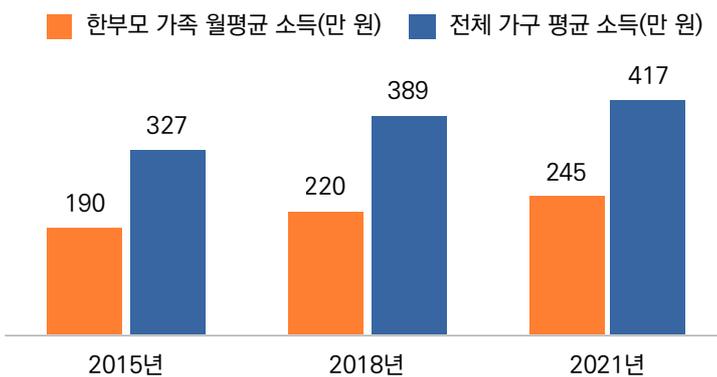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5.23.(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면접조사, 2021.03~12)

**기타가구: 모자(母子), 부자(父子) 외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

◎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가구 대비 절반 수준!

- ▶ 2021년 기준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245만 원으로, 2018년 220만 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 가구 소득 대비(『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한부모 가족의 평균 소득 비율은 59% 수준이다.

[그림] 월 평균 소득 (한부모가구 vs 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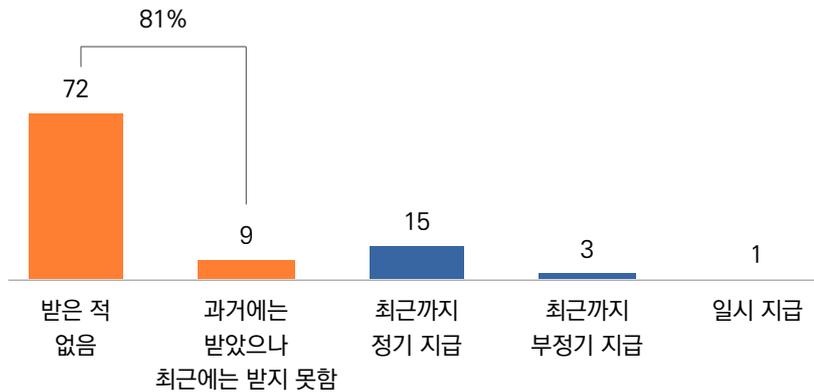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5.23.(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면접조사, 2021.03~12)

◎ 한부모, ‘양육비 받은 적 없거나 최근에는 못 받고 있다’ 81%!

- ▶ 양육비 지급 여부를 묻은 결과, 한부모 중 72%가 ‘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9%는 ‘과거에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 한부모 10명 중 8명(81%)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양육비를 받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경우는 15%에 그쳐 대부분의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양육비 지급 받은 형태 (한부모 가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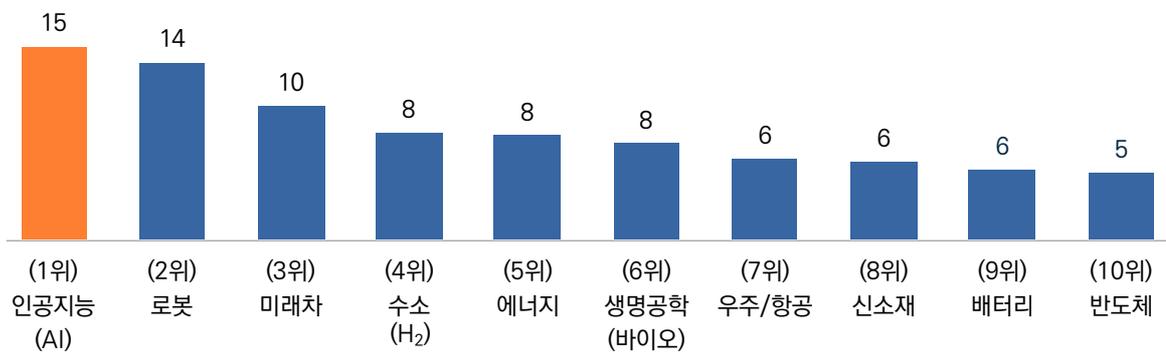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2.05.23.(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 면접조사, 2021.03~12)



우리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은? 1위 '인공지능', 2위 '로봇', 3위 '미래차'!

- ▶ 57회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특허청에서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 ▶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발명 기술로 '인공지능'(15%)을 가장 많이 뽑았다. 이어서 2위는 '로봇'(14%), 3위는 '미래차'(10%)가 차지했으며, '수소', '에너지', '생명공학(바이오)'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 1위로 뽑힌 '인공지능' 기술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이며, 로봇(2위) 기술 또한 새 정부가 세계 3대 강국 도약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기술 분야이다.

[그림]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 (%)



*자료 출처 : 특허청,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10대 발명 기술' 보도자료, 2022.05.18. (총 768명 응답하였고, 유효응답은 2,213개임)

기후위기 시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우리는 지금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크나큰 기후 위기 앞에 놓여 있다.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국제 사회의 공식 보고서에 담겨 있다.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1988년에 공동 설립한 유엔 산하 기구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내놓은 6차 평가보고서다. 60여 개국 수백 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이 보고서는 5차 평가보고서(2014년) 이후 8년 만에 나온 것으로, 전 세계는 이에 근거하여 기후 협약과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내용

보고서는 세 가지 특별보고서(『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변화하는 기후에서의 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와 세 가지 실무그룹 평가보고서와 종합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9월에는 최종 종합보고서가 발표된다.

제1 실무그룹 보고서는 5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된 2014년 이후 지구 평균표면온도가 더욱 급격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했다. 지구 평균표면온도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0.78도 높았던 것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1.09도 높은 상태가 되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391ppm에서 410ppm으로 늘어났음을 확인했다. 사실 지난 80만 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이상으로 상승한 적이 없었는데,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는 420ppm 가까이 치솟았다. 지구 평균표면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가 상승한 것인데, 문제는 변화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다. 온도 상승 속도가 자연적 상승 속도보다 10배나 빠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급격한 상승 원인이 인간의 활동임이 '명백하다(99~100%)'라고 말한다. 그리고 인구, 에너지 소비, 경제 활동 등 인간 행위가 지구 기온을 어떻게 바꿀지 다섯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했는데,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으면 인류가 공멸할 수 있음도 분명히 했다.

제2 실무그룹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에 관해 다룬다. 영향은 이미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물 종의 약 절반이 극지방이나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으며, 특히 바다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면 육상 모든 동식물의 15%가, 열대 산호초는 최대 90%가 사라지고 식량 안보도 위협받을 것인데, 현재에도 이미 그 영향이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식량 생산량 감소와 물 부족, 거주지의 파괴로 이어져 난민을 양산하며, 사회정치적 갈등도 증폭시키고 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등 취약한 지역에서 홍수, 가뭄, 폭풍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15배나 더 많았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소외된 지역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적응 대책이 위험을 줄이는 데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앞으로 공정성과 정의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3 실무그룹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지구 평균표면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잔여 탄소 예산보다 현재 가동 중인 화석 에너지 기반의 인프라에서 배출될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석 에너지의 대규모 퇴출이 없이는 1.5도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지금처럼 지구 온도 상승 속도에 못 미치는 대응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게 될 것이다.

보고서는 기술의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했다. 에너지 수요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생활 수준의 하락 없이도 2050년 온실가스를 기준선 대비 40-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는 기술 투자를 위한 자금인데, 자금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금을 배분하느냐가 문제이다. 해법을 만들어 낼 기술 분야에 자금을 제대로 배분해야 기후를 망가뜨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모두가 적절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6차 보고서가 발표되기까지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했고, 선진국들은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증가율이 최근 10년 동안 연 1.3%로 이전 10년보다 줄어든 것도 희망의 신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보고서가 지적하듯, 산업과 사회 전 부문에서 에너지 생산과 저장 기술이 확산되고, 건물, 산업, 교통 부분의 에너지 효율 개선, 생활 습관의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감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약속하고 행동해야만 2030년까지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의 43%(2050년까지 80%)를 감축할 수 있고, '배출 증가율'이 아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만약 기후 위기의 원인인 탄소 배출량을 빠르게 저감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적응 대책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기술 개발을 주로 삼는 적응 전략을 넘어, 기후, 생물 다양성, 인간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는 전략을 세우고, 기후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와 우리, 지구의 미래가 안전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위기 가운데 있다. '기후 위기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65%)'임을 확인했던 3차 보고서(2001) 발표 후부터 깨어 행동했다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었을 것이다. 그때 행동했다더라면, 전년 대비 4% 정도씩만 탄소 배출량을 줄여도 됐었다(조천호). 이제는 매년 15% 이상 줄여야만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0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셈이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기회의 시간이 전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기후 위기는 단순히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의 위기다. 그만큼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전 교회가 합심해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이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그를 위해 애쓰는 '기후교회'가 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건물이므로, 교회가 먼저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힘쓰며, 적정 냉난방을 하며, 재생 에너지 활용에 힘쓰고, 교우들이 탄소 제로 걷기를 실천하고, 교회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탈육식과 로컬푸드 이용 등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힘쓴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고서가 말하듯, 서둘러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기후 금융(투자)에 힘쓰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는 '탄소제로 녹색교회 실천공동체'(아래 <탄소제로 녹색교회 만들기 과정> 표 참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으면, 지역 사회와 힘을 합해 기업과 정부에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태초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신앙 과제이다. 그러한 '탄소중립'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곧 '녹색 교회'로서의 본질을 드러내는 '기후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다. '탄소중립 기후교회'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기후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 기후 위기로 병든 곳 아픈 곳을 고쳐 나가게 되길 바란다.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7호\(2022년 6월 1주\)](#)

- 지방선거 사후 조사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72호 \(2022년 6월 1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등

[\[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 26.2%는 어디에서 사라졌을까?](#)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2.06.03.

['보수성향' 60대 이상 투표 열기, 승패 갈랐다](#)

연합뉴스_2022.06.02.

◎ 사회 일반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 ‘꿀잠’에 투자하는 현대인들](#)

트렌드모니터_2022.05.31.

[코로나19 우울위험군·자살생각률 감소 추세…30대 최고](#)

연합뉴스_2022.06.03.

[업무 효율 올리려면… 회사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기](#)

헬스조선_2022.06.03.

[조기은퇴와 직장인의 부수입 창출 활동에 관한 조사](#)

한국리서치(여론 속의 여론)_2021.06.16.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할까?…통계로 본 한국의 안전](#)

뉴시스_2022.06.05.

[음식배달 줄고 여행·문화 소비는 폭증](#)

중앙일보_2022.06.03.

[1인 가구 소비 지출 중 주거 관련 비중 최고…20% 넘어](#)

연합뉴스_2022.06.01.

[스쿨존은 칼같이 관리… 보행 사망 59% 어르신인데 실버존은 방치](#)

조선일보_2022.06.06.

[와인에 월 평균 7만 9000원 쓴다...대중화 성큼](#)

중앙일보_2022.06.02.

[서울 고가 아파트값 1년 새 20% 올라, 상승률 아시아 1위](#)

중앙일보_2022.06.06.

[‘서울 사람’ 950만 명도 안된다…1000만 명대 무너진 지 6년 만](#)

문화일보_2022.06.06.

[“머리는 풀이냐”… 직장 내 괴롭힘 30% 상사의 언어폭력](#)

조선일보_2022.06.0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청소년 / 청년**

['썸타자'며 내위 올라탔다...어른들은 모르는 10대 무법천지](#)

중앙일보_2022.06.0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절반은 채팅앱으로 유인](#)

연합뉴스_2022.06.03.

[청소년 '위험음주' 집단, 한달 평균 6일 소주 1병 이상씩 마신다](#)

연합뉴스_2022.05.31.

[왕따가 남긴 상처 평생 간다...“성인 됐을 때 우울증 위험 1.8배”](#)

조선일보_2022.05.31.

◎ **건강**

[왜 채식해요? 10명 중 7명 '이런 이유'](#)

헬스조선_2022.06.06.

[하루 2~3잔 커피, 심장병 위험 낮춘다는데... 설탕 넣어 마시면?](#)

조선일보_2022.06.01.

[일흔 되면 확 늙는 이유...“피가 단순해져 허약해진다”](#)

연합뉴스_2022.06.02.

◎ **경제**

[대출 줄었다지만...한국 가계 빚 여전히 GDP 대비 세계 1위](#)

연합뉴스_2022.06.06.

◎ **국제**

["미국인 절반 이상 낙태 찬성...사상 최고 수준"〈갤럽〉](#)

연합뉴스_2022.06.02.

["우린 이제 후진국" 일본의 한탄...국민소득 '2위→28위' 추락](#)

한국경제_2022.06.07.

◎ **기독교 / 종교**

[기감 목회자 38%, 월 사례비 100만원이 안 된다는데... 교단 차원 생활보장제도 확충해야](#)

국민일보_2022.06.03.

[2천 6백만 명 “팬데믹 기간에 성경읽기 중단”](#)

크리스찬타임스_2022.05.27.

[미국 기독교인 3분의 2, 전도 방법 전혀 모른다](#)

크리스찬타임스_2022.06.0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대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 선교햇살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권순홍, 차원숙, 은평교회(김삼열 목사), 원동교회(정현민 목사), 세광교회(유창진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 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 연구소 소식 |

우리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는 기후위기 관련 포럼을 안내합니다.

제6차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기후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 일시 : 2022년 6월 21일(화) 오후 1시~4시
-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구관)
4층 제1연수실(온라인 zoom 동시 진행)
- 문의 : 010-8605-0675(이박행) / 010-8966-1557(유미호)
- 신청 : <https://bit.ly/3MRfD8I>포럼

